



12면

완주군, '초남이성지' 발굴 착수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음 2월 15일) 제2977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전주시, 총 676억 규모
관련예산 추가 편성
시 주민등록자 등 대상
지급기준일 추후 발표



김승수 전주시장(사진 오른쪽)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무너진 시민들의 일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66만 전주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깊어진 경제 위기를 해소하고 전주시민의 치유와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동화 의장은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시는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676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이 목적이다. 지급 대상은 전주시 주민등록자와 결혼이민자, 영주자녀자 등이다. 지급 기준일은 관련 조례 및 추경안 의결 후 발표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신청자에게 우선 지급되고, 이후 오프라인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전주시탕상품권(폐지카드)

에 가입한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중 전주시탕상품권에 새로 가입하는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온라인 지급기간 종료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될 예정이다. 세대원이 동의하는 경우 세대주가 나머지 세대원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4월 중순 이후부터 온라인 신청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전주시탕상품권과 동일하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전주지역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공동체정신과 끈끈한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착한임대인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착한 선결제운동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혁신정책을 펼쳐왔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코로나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등 우리 모두의 연대와 노력으로 일상 회복의 길이 열리리라 믿는다"면서 "부족하나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새봄의 파스합처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장기화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절박함을 느끼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 "아직도 멈추지 않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고 이웃과 연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6일 익산신림항공관리소를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소방 헬기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여러분 덕분에 안전합니다"

송하진 도지사, 도내 산불예방 대응체계 점검
도, 내달 17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 예방·감시

경북 울진 등지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지역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송 지사는 16일 산불진화의 선봉 역할을 맡고 있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익산신림항공관리소와 '익산시 산불대응센터'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산불 방지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30.94ha 상당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봄철 대형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취약지역 등에 감시원들을 전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강화,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캠페인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송 지사가 이날 방문한 익산신림항공관리소에는 현재 초대형 진화헬기 1대와 대형진화헬기 2대가 배치돼 있으며, 산불 공중진화대와 드론진화대를 운영하면서 전북도와 공조해 산불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송 지사는 항공관리소에서 도내 산불발생시 주불 진화에 도움을 준 각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도내 산불 진화는 물론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지원 등 각종 산림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익산시 산불대응센터를 찾아 산불현장에서 초동진화에 앞장서는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지속되는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송하진 지사는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진화대의 빠른 대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안전은 물론, 전북도의 산림과 터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초동진화와 산불 정리로 오랜 시간 애써 주신 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화 작업 시, 산불 예방진화대원들의 안전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과 청명, 한식으로 입산객도 늘어나게 되면, 산불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산불 예방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산불감시원 760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58명 총 1,418명이 산불예방 및 대응에 활동 중에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중개기관 선정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회적기금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중개기관'으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의 공모기간을 거쳐 사회적기금 관련 운용실적을 보유하고, 도 기금과 매칭(5:1)

도, 기금 총 50억 조성 목표

할 자체 조성기금을 확보한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대면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중개기관으로 선정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도내 사회적경제분야 39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민간연대 조직으로, 2020~21년 전주시 기금

과 2021년 전북도 기금을 운용한 이력이 있다. 이 단체는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융자지원으로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융자기업에 대한 자금활용 모니터링, 경영 컨설팅, 금융교육 등 사후관리를 통한 기업 성장지원 계획이 도의 기금 운용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도는 사회적기금 운용 중개기관이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에서 지역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사회적기금 운용 중개기관을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25년까지 총 50억 원을 조성 목표로, 지난해 59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59억원이 조성됐다. 이 기금은 담보없이 취약해 금융권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저금리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